청렴세상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3. 2.

전남농업정보

23 VOL

- 주간 기상전망
- 축산물 사육 동향
  - 축산물 수급 전망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 배추, 무, 한육우, 젖소, 돼지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고품질 전남 쌀, 유럽지역에 첫 수출하다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히트펌프 냉난방 기술의 진화
- 정책동향
  -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안심 농사 지으세요
  - 한-중 FTA 가서명 완료
- 해외 농업정보
  - 러시아, 2~6월 기간동안 밀 2백만 톤 수출전망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5일은 낮겠음.

❀ 축산물 사육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축산물 수급 전망(농업전망 2015)
- 올봄 조사료 생산 급감, 소 사육 농가 어쩌나

❀ 농축산물 가공·출하 및 가격동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가공식품** : 간장(샘표) 4,727원/ℓ, 고추장(대상) 1,052원/100g, 김치(대상) 6,790원/kg, 두부(풀무원) 1,347원/100g

- 전년대비 간장 1.5% 상승, 고추장 8.0% 상승, 김치 4.2% 하락, 두부 35.1% 상승

▸ **엽근채소 : 배추, 무**

- **배추** : 월동배추 산지 및 저장 출하량이 작년보다 17% 적어 작년보다 높고 평년보다는 낮은 4,000~5,000원/10kg 전망
- **무** : 월동무 출하량이 작년보다 15% 감소하여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9,000~10,000원/18kg 전망

▸ **축산물 : 한육우, 젖소, 돼지**

- **한육우** :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여 3~5월 큰 소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13,891원)보다 1~8% 상승한 kg당 14,000~15,000원(생체 600kg 환산 501~537만 원)으로 전망

· 젖 소
- 2015년 상반기에도 원유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2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56만 5천~57만 톤으로 전망

· 돼 지
- 고가 지속으로 2014년 모돈 도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
- 3월 사육 마릿수는 990~1,010만 마리로 전년보다 2.1~4.1% 증가 전망
- 3~4월 탕박 지육가격 4,500~4,700원/kg 전망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전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고품질 전남 쌀, 유럽지역에 첫 수출하다

▸ 제철 앞둔 '오렌지' 가격 폭등

▸ 중국, 미국산 사과 모든 품종 수입한다

▸ 담양군 자체 개발 딸기 '담향·죽향' 세계시장 진출

▸ 순천 농특산물 첫 미국 수출길

▸ 전남도-NH농협무역, 해외시장 공략 공동전선

❀ 농업기술정보(전남도, 농촌진흥청, 경기농기원)

▸ 히트펌프 냉난방 기술의 진화
· 지하수에 열 저장, 겨울에 꺼내 쓴다

▸ 전남농기원,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1호 발표
· 시설재배작물 잿빛곰팡이병, 균핵병, 노균병, 흰가루병 발생초기 방제

▸ 상추 시들음병, 미생물로 완생
· 경기농기원, 병해충 방제·토마토 생육촉진 2종 개발·보급

▸ 사과 '부란병' 손쉽게 진단하려면?
· 3월 초 비온지 2~3일 후 줄기나 가지의 점액질 관찰

❀ 정책동향(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 ▸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안심 농사 지으세요
-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 규모 농가까지 확대
- ▸ 부모님의 평생 세뱃돈 마련, 농지연금으로
- ▸ 한-중 FTA 가서명 완료
- ▸ 2030세대 젊은 농업인에게 2,300ha 농지 지원
- ▸ 전남도, 영농기 이전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실시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러시아, 2-6월 기간 동안 밀 2백만 톤 수출전망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수요 부진으로 최근 3주래 최저치 하락
  - · 밀과 마찬가지로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수요 부진으로 하락
  - · 대두 선물가격은 가공업자와 수출업자 간 수요경쟁으로 견조세

❀ 고소득 농업사례(남도일보, 디지털농업)

- ▸ 완도 봄빛농장, 무농약 유자제품으로 승부
- ▸ 황금빛 울금 가공으로 부농 일군다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 201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 · 기간/장소 : 3. 2. ~ 3. 31./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 신청대상 :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
  - · 지급기간 : (유기) 계속, (무·저농약) 3년

▸ **2015년 농업소득보전 직접 직불금 신청**

- 신청기간 : 3. 2. ~ 6. 15.
- 신청장소 : 읍 · 면 · 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지원 · 사무소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실 경작하는 농업인

▸ **농수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 기간/장소 : 2. 26. ~ 3. 10./시·군(유통부서)
- 지원대상 :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을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지원규모 : 개소당 5,000천원

▸ **2015년 산림소득사업 공모 신청**

- 기간/장소 : 2. 23. ~ 3. 6./시·군(산림부서)
- 공모규모 : 3개소/1,500백만원
- 신청자격 : 전문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 저장·건조시설 등

▸ **닭·오리 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신청**

- 기간/장소 : '15. 3. ~ 12./시·군(축산부서)
- 지원대상 : 260개소(닭·오리 사육농가)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비용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3. 2.기준/단위 : 원)

부류	품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율(%)	
		판매단위	당일(3/2)	전주(2/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대비	평년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41,200	41,400	41,400	43,600	40,584	↓ 5.5	↑ 1.5
	콩(백태)	35kg	138,000	140,000	140,000	142,250	182,083	↓ 3.0	↓24.2
	고구마(밤)	10kg	27,400	23,400	22,280	19,450	25,470	↑40.9	↑ 7.6
	감자(수미)	20kg	34,400	30,200	26,400	18,300	30,003	↑88.0	↑14.7
채소류	배추(월동)	1kg	450	410	386	362	978	↑24.3	↓54.0
	양배추	10kg	6,600	6,300	5,120	4,020	7,332	↑64.2	↓10.0
	오이(다다기계통)	15kg	57,000	56,667	71,067	58,833	58,450	↓ 3.1	↓ 2.5
	애호박	8kg	24,400	28,800	36,160	30,100	27,507	↓18.9	↓11.3
	토마토	10kg	30,200	28,000	30,480	38,400	34,964	↓21.4	↓13.6
	무(월동)	1kg	490	500	444	385	-	↑27.3	-
	당근	20kg	20,800	19,400	16,560	17,000	23,853	↑22.4	↓12.8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60,000	817,333	↑24.2	↑ 0.3
	풋고추	10kg	94,600	115,800	90,320	89,450	87,950	↑ 5.8	↑ 7.6
	마늘(난지)	10kg	35,000	34,600	34,600	27,800	35,260	↑25.9	↓ 0.7
	양파	1kg	660	560	524	725	935	↓ 9.0	↓29.4
	대파	1kg	1,860	1,500	1,260	1,280	1,828	↓45.3	↑ 1.8
	파프리카	5kg	26,000	30,400	32,240	28,000	38,347	↓ 7.1	↓32.2
	방울토마토	5kg	15,000	15,600	20,600	25,900	23,302	↓42.1	↓35.6
	딸기	1kg	10,200	12,800	12,240	9,600	9,070	↑ 6.3	↑12.5
과일류	사과(후지)	15kg	62,600	62,600	58,400	86,800	77,150	↓27.9	↓18.9
	배(신고)	15kg	36,800	36,000	36,120	45,500	45,913	↓19.1	↓19.8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3/2)	전주 (2/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8,000	528,000	525,600	534,000	566,267	↓ 1.1	↓ 6.8
	들깨	45kg	430,000	430,000	430,000	436,000	371,733	↓ 1.4	↑15.7
	새송이버섯	2kg	8,800	10,200	7,920	8,550	-	↑ 2.9	-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231	6,694	6,707	6,010	6,107	↑ 3.7	↑ 2.0
	돼지고기(삼겹살)	100g	1,578	1,949	1,721	1,478	1,441	↑ 6.8	↑ 9.5
	닭고기	1kg	5,447	5,437	5,166	5,835	5,647	↓ 6.6	↓ 3.5
	계란(특란)	10개	1,976	1,997	1,980	1,882	1,744	↑ 5.0	↑13.3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2	2,259	↑ 0.2	↑12.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3. 2.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781 천원	4,558 천원	3,828 천원	↑ 4.9	↑ 24.9
	거세	5,179 〃	5,090 〃	5,044 〃	↑ 1.7	↑ 2.7
송아지 (6~7월)	암	2,016 〃	1,952 〃	1,365 〃	↑ 3.3	↑ 47.7
	수	2,383 〃	2,378 〃	2,097 〃	↑ 0.2	↑ 13.6
육우(600Kg)		3,430 〃	3,116 〃	2,547 〃	↑ 10.1	↑ 34.7
젖소수송아지(7일령)		39 〃	39 〃	16 〃	-	↑ 143.8
돼지(110kg)		328 〃	348 〃	390 〃	↓ 5.7	↓ 15.9
육계(원/kg)		1,857 원	1,897 원	1,486 원	↓ 2.1	↑ 25
계란(원/특란10개)		1,270 원	1,392 원	1,203 원	↓ 8.8	↑ 5.6
오리(원/kg)		2,166 원	2,166 원	2,000 원	-	↑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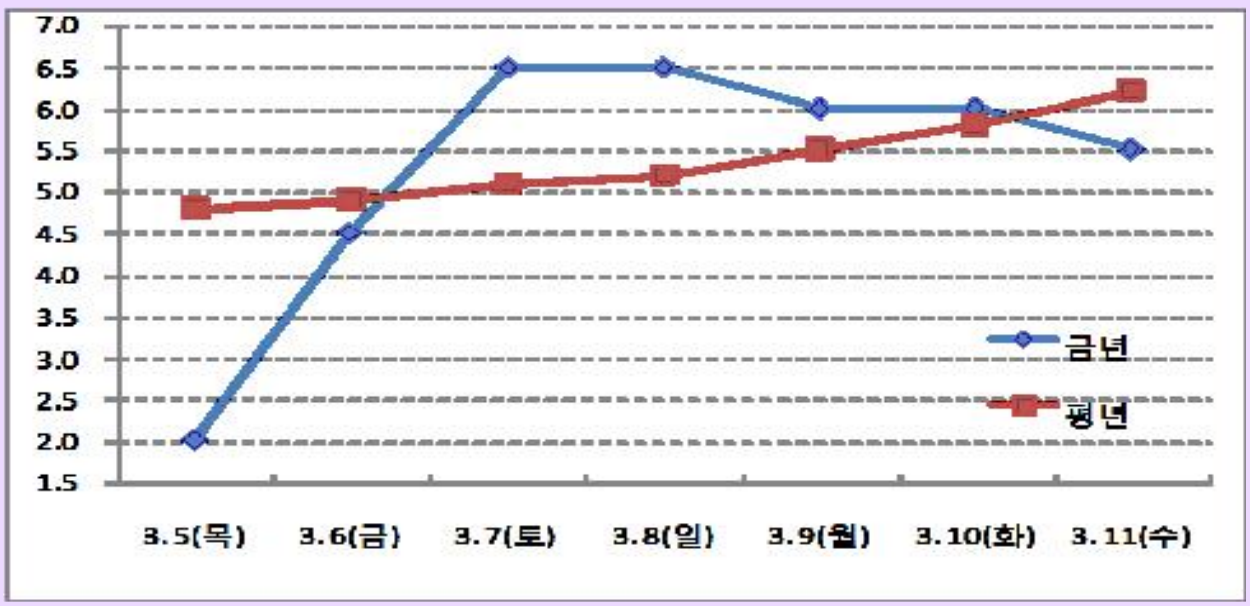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5.3	5.4	-0.1	9.9	10.5	-0.6	0.7	1.4	-0.7	1.7
3. 5(목)	2.0	4.8	-0.8	6.0	9.7	-3.7	-2.0	1.0	-3.0	2.1
3. 6(금)	4.5	4.9	0.6	10.0	9.7	0.3	-1.0	1.0	-2.0	2.1
3. 7(토)	6.5	5.1	-0.6	11.0	10.1	0.9	2.0	1.2	0.8	1.7
3. 8(일)	6.5	5.2	0.3	12.0	10.3	1.7	1.0	1.3	-0.3	1.8
3. 9(월)	6.0	5.5	-1.5	10.0	10.6	-0.6	2.0	1.5	0.5	1.7
3. 10(화)	6.0	5.8	-1.8	10.0	11.2	-1.2	2.0	1.7	0.3	1.1
3. 11(수)	5.5	6.2	-1.7	10.0	11.6	-1.6	1.0	2.0	-1.0	1.4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축산물 사육 동향

축산물 수급 전망(농업전망 2015)

❑ 2015년 수급 전망

○ 송아지 생산 마릿수보다 도축 마릿수 규모가 커 2015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4년의 276만 마리보다 3.6% 감소한 266만 마리로 예상된다. 도축 마릿수 감소로 2015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4년보다 5.8% 감소한 24만 6천 톤, 쇠고기 수입량은 3.3% 증가한 29만 톤으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 감소로 2015년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원/kg)은 2014년 1만 4,283원(512만 원/600kg 환산)보다 4.2% 상승한 1만 4,878원(533만 원)으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량 감소 폭이 커 2015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14년보다 1.0% 감소한 10.7kg으로 예상된다.

○ 2014년 하반기 젖소 도축 마릿수가 증가하였고, 유업체별 원유 감산 정책의 시행으로 2015년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한 42만 8천 마리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의 감소로 2015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5.0% 감소한 208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 2014년 후보돈 입식 증가와 모돈 도태 감소로 2015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1.9% 증가한 1,001만 마리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 증가로 2015년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3.4% 증가한 1,618만 마리로 예상되며, 생산량은 85만 3천 톤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와 지육가격 하락으로 2015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13.1% 감소한 24만 톤 내외로 전망된다. 도축 마릿수 증가로 2015년 지육가격은 전년보다 11.6% 하락한 4,241원/kg으로 전망된다.

○ 2015년 계란 생산에 가담할 2013년 8월~2014년 12월까지의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증가하여, 2015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2.8% 증가한 6,693만 마리로 전망된다. 2015년 계란 생산량 증가로 인해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7.2% 하락한 1,274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 미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조치와 계열업체의 닭고기 생산 증가계획으로 2015년 국내산 닭고기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육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4.6%증가한 8,760만 마리, 도계 마릿수는 4.3% 증가한 9억 2,350만 마리로 전망된다. 닭고기 공급량은 증가하지만 닭고기 소비량 증가와 미국산 닭고기의 국내산 대체 등으로 2015년 생체 kg당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0.9% 상승한 1,587원으로 전망된다.

○ 종오리 입식 마릿수가 점차 회복함에 따라 2015년 오리 사육 마릿수는 2014년보다 33.6% 증가한 949만 마리로 전망된다. 2015년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 고기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12.7% 하락한 6,965원/3kg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 수급 전망

○ 한육우 사육 마릿수의 감소세는 201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도축은 2019년을 전후하여 다시 증가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로 수입육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시유 소비의 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당 산유량의 증가로 젖소 사육 마릿수는 향후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의 감소로 원유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 등 유제품 관련 국가에 대한 교역 조건의 변화로 유제품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돼지고기 사육 마릿수는 2016년 고점을 기록한 뒤 도매가격 하락으로 2017~18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후 모돈 생산성 향상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 증가로 도축 마릿수도 2016년 고점을 기록한 뒤, 2017~18년 감소 후 2019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6년까지는 국내 생산량 증가와 도매가격 하락으로 감소하나, 이후 육류 소비 증가와 FTA 타결에 따른 관세 인하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계란 소비의 증가로 향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성 증가에 따른 계란 공급량 증가와 1인당 소비량의 증가가 영향을 주어 2015년 이후 계란 산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적인 닭고기 수요 증가로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은 2016년까지 증가하다, 2017년에 감소 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5년 미국 AI로 원종계 수입이 계속 지연될 경우, 2016년 상반기부터 국내산 닭고기 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

○ AI 이후 오리 사육 마릿수는 종오리 입식 마릿수 회복으로 2019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 이후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 산지가격은 국민 소득의 증가에 따른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 증가로 2015년 이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올봄 조사료 생산 급감, 소 사육농가 어쩌나

작년 값 하락으로 곡물재배 전환·휴경…면적 줄어

생육도 부진 '수급차질'…농가 경영비 부담 가중

농식품부, 직불금 확대지원 등 봄 파종 참여 유도

○ 조사료 작물 파종면적 감소 등으로 올봄 국산 조사료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국산 조사료 생산량이 줄어들면 소 사육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늘릴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올봄 국산 조사료 생산량이 크게 줄어 소 사육농가들의 경영난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관계기관에 따르면 청보리 등 오는 5월 중 수확할 국산 조사료 작물의 재배 면적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21만5000ha보다 무려 25% 이상 감소한 16만1000ha에 그쳤다.

○ 여기에 지난해 가을 파종 이후 고르지 못한 날씨 영향으로 생육마저 부진한데다 조사료로 사용할 볏짚 수거량도 크게 감소해 올봄에는 국산 조사료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실제 농협중앙회가 조사료를 전문으로 생산해 유통하는 전남·전북·충남지역 1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올봄 조사료 예상 생산량은 21만8000t으로, 전년 대비 14%가량 줄 것으로 나타났다.

○ 영농조합법인 등 조사료 경영체들의 사정은 이보다 더욱 나빠 올봄 국산 조사료 전체 생산량은 지난해(380만t 추정)에 비해 25~30% 가량 감소할 것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조사료용으로 사용할 볏짚 수거량 역시 전년 대비 50~60% 수준에 머문 것으로 관계기관은 내다보고 있다.

○ 올봄 국산 조사료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농가들이 조사료 작물보다는 보리 등 곡물 재배 쪽으로 전환하거나 휴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2013년 봄에는 조사료 작물로 만든 곤포사일리지가 1㎏당 140~150원선에 거래됐지만 지난해 봄에는 90~110원 선으로 떨어지자 조사료 작물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시들해진 것이다.

○ 2013년 수확기 1롤(곤포사일리지 500㎏ 기준)에 5만원을 넘었던 사료용 볏짚 가격도 지난해엔 4만5000원 선으로 하락하자 농가들은 대부분 곤포 작업을 하지 않고 볏짚을 논에 그대로 방치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 전남 영광에서 청보리를 전문으로 재배하는 한 농가는 "정부에서 청보리 종자값과 사일리지 제조비 등을 지원해줘도 곤포사일리지 1㎏당 120~130원은 받아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누가 조사료 농사를 짓겠느냐"고 반문했다.

○ 이처럼 올봄 국산조사료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자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산조사료 생산량 감소는 곧바로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우·육우 등 소 사육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어서다.

○ 게다가 올해는 수입조사료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이 75만t으로, 지난해보다 10만t이나 줄어든 것도 소 사육농가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이 청보리·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동계 조사료 작물의 봄 파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기로 하고 봄 파종에 나서는 농가에게도 '동계 이모작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특히 조사료 작물 봄 파종에 나서는 농가의 직불금 단가를 1㏊당 50만원(종전은 4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 출처 : 농민신문('15. 2. 27.)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배추, 무

○ (배 추)
- 월동배추 산지 및 저장 출하량이 작년보다 17% 적어 작년보다 높고 평년보다는 낮은 4,000~5,000원/10㎏ 전망

○ (무)
- 월동무 출하량이 작년보다 15% 감소하여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9,000~10,000원/18㎏ 전망

축 산 물 : 한육우, 젖소, 돼지

○ (한육우)
-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여 3~5월 큰 소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13,891원)보다 1~8% 상승한 kg당 14,000~15,000원(생체 600kg 환산 501~537만 원)으로 전망

○ (젖 소)
- 2015년 상반기에도 원유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2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56만 5천~57만 톤으로 전망

○ (돼 지)
- 고가 지속으로 2014년 모돈 도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
- 3월 사육 마릿수는 990~1,010만 마리로 전년보다 2.1~4.1% 증가 전망
- 3~4월 탕박 지육가격 4,500~4,700원/kg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고품질 전남 쌀, 유럽지역에 첫 수출하다

- 해남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 쌀' 영국에 수출 -

○ 전남 해남군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 쌀'이 처음으로 영국 수출길에 올랐다. 전남도에 따르면 24일 해남 옥천농협 오케이라이스센터에서 이낙연 전남지사, 김성일 전남도의원, 강남경 농협 전남지역 본부장, 박재현 옥천농협 조합장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눈에 반한 쌀'의 영국 수출 기념식을 갖고 전남 쌀의 유럽지역 첫 수출을 축하했다.

○ 이번 1차 수출물량은 총 5톤(16백만원 상당)으로 유럽 전역에 유통망을 갖고 있는 영국 바이어 측에서 해남 옥천농협에 제안하여 성사되었으며, 현지 H마트 등에서 판매 예정이다.

○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 수출은 외국에서도 전남 쌀의 우수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전남도에서는 옥천농협이 영국 수출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은 물론 미국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 물류비 지원 등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 전남도는 '15. 1. 1. 쌀 관세화 시행으로 '95년부터 시행된 쌀 수출 추천제가 3월부터 자유화됨에 따라, 전남 쌀 수출 확대를 위하여 농협 전남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기존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와 신규 추진중인 농협 등을 대상으로 수출 동향, 주요 국가 소비 기호 및 유통실태 등 정보 제공, 해외 바이어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 수출 대상국별 맞춤형 쌀 생산 체계 구축과 고품질 쌀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육성(42억원), 품종 분리, 저온 저장, 완전미 선별 등 RPC 시설개선 지원과 미곡 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11억원)을 지원 등을 통해 전남 쌀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전남도에서는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강화와 함께 전남 쌀의 이미지 제고와 고품질 쌀을 생산을 위해 품종 선택에서부터 철저한 재배관리, 수확 후 건조·가공을 차별화하고, 전국 인증 면적(47,990ha)의 62%에 달하는 친환경 재배면적을 활용해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에 주력하는 한편 5월중 전남 10대 브랜드 쌀 선정 등을 추진한다.

○ 또한, 전남 쌀의 판매촉진을 위해 서울시 학교급식(친환경 쌀 53%) 공급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전남도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의 학교급식에 유기농 쌀을 공급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제철 앞둔 '오렌지' 가격 폭등

- 美 현지 항만 노조 태업으로 선적 지연…반입량 전년比 30% 급감 -

○ 봄 제철을 앞두고 미국산 오렌지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24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미국산 네이블 오렌지(18kg/상)의 2월(1~22일) 평균 도매가격은 5만6천856원으로 작년(5만2천915원)보다 7% 상승했다.

○ 이는 지난 2013년 하반기 북미 한파로 주요 산지인 캘리포니아가 냉해 피해를 입어 가격이 폭등했던 2014년보다도 높은 것으로, 최근 5년 중 최고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또 올해는 작년보다 산지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전년 대비 15% 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가격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업계 관계자는 “보통 국내 수입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2월에는 1월보다 가격이 저렴해지지만 올해는 2월에도 전월(5만2천704원) 대비 8% 가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이같이 오렌지 가격이 고공 행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작년 7월 시작된 캘리포니아 항만 노조 태업으로 오렌지의 국내 반입이 지연돼 수입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주 수출입 관문인 항만에서 선적과 하역 작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오렌지의 국내 반입 시기가 평소 3~4주 가량에서 최근에는 5~6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실제로 국내 수입업체의 반입 물량이 주문량의 60% 수준에 그치는 등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올해 1월 미국산 네이블 오렌지 수입량 역시 2천685톤으로 전년 동기(4천84톤) 대비 30% 이상 급감한 상태다.

○ 이에 따라 오렌지는 한-미 FTA 발효로 3월부터 8월까지 작년보다 5% 낮아진 15%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임에도 올해는 관세 인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또 이처럼 나들이철 수요가 집중되는 3월을 앞두고 인기 수입과일인 오렌지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아시아뉴스

중국, 미국산 사과 모든 품종 수입한다

– 국산 사과 중국 진출 모색을 –

○ 중국이 최근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사과 수입을 허용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에 따르면 1월 하순경 미 농무부 관계자들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만나 기존 중국에서 수입하던 2개 품종 외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사과를 중국이 수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미 농무부 장관 톰 빌섹은 “이번 합의로 중국에 미국의 질 좋고 신선한 여러 종류의 사과를 수출할 수 있게 돼 미국 사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앞서 미국은 1994년부터 <레드 딜리셔스> <골든 딜리셔스> 두 종류의 사과를 중국에 수출해 왔다. 하지만 워싱턴주를 비롯한 미국에서 생산되는 사과 중 이들 품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20년간 중국에 이들 2개 품종 외에 더 많은 품종의 사과를 수출하기 위해 힘써왔고, 최근 결실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우리나라 사과는 현재 대만·러시아·인도네시아 등으로 연간 1500t가량이 수출(2014년 기준)되고 있지만, 검역상 문제 등으로 중국 본토 진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중국의 경우 연간 사과 소비량이 3599만t(2011년 기준)으로, 우리의 95배 수준에 달할 정도의 넓은 소비시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 사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향상을 전제로, 향후 중국 진출이 이뤄질 경우 지리적 인접성 등에 따른 판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출처 : 농민신문

담양군 자체 개발 딸기 '담향·죽향' 세계시장 진출

○ 담양군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딸기 '담향'과 '죽향'이 한국을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한다.

○ 지난 5일 담양군은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네덜란드 플레보플렌트 육종회사 관계자와 함께 담양군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딸기 '담향'과 '죽향'에 대한 해외품종보호 출원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수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수출협의회에선 국제인증묘 생산체계와 담양딸기 해외적응성시험 방법, 공동육종프로그램 개발 등이 논의됐다. 또한 현재 유럽에서 재배중인 딸기품종의 특성과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담향'과 '죽향' 품종이 크기나 모양, 당도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해외전문가들은 '담향'과 '죽향'을 재배중인 농가를 직접 찾아가 현장컨설팅을 진행한데 이어 백화점과 경매시장 등 국내 시장반응도 함께 조사했다.

○ 이번 수출협의회를 기점으로 담양군은 2월 중에 '담향'과 '죽향'에 대해 해외품종보호 출원을 진행하고, 오는 5월에는 플레보플렌트와 공동육종 연구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순천 농특산물 첫 미국 수출길

○ 순천시의 농특산물이 처음으로 미국 수출길에 오른다. 순천시는 다음달부터 미국 남 캘리포니아 6곳에서 동시에 시험 판매할 농특산물 20여종을 27일에 선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출은 지난해 9월 LA 한인축제 행사에 참가해 현지 점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 이번에 미국으로 가는 통특산물은 덕동원의 돼지감자즙, 순천매실의 매실원액, 쌍지뜰의 쌀과자, 참과일촌의 조청, 시스타의 해조류 등 20개 품목이다.

○ 27일 선적하는 상품은 1컨테이너 불량(4만 8,000달러 상당)으로 오는 3월 2일 광양항을 통해 수출한다.

○ 순천시는 미국 현지 점포에서 시험 판매를 통해 소비자 기호를 파악한 후 현지 맞춤형 상품과 디자인을 개발해 LA, 얼바인, 샌디에고, 부에나파크, 세리토스, 하와이안가든 등 6곳에서 동시 판촉 행사를 열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매일

전남도-NH농협무역, 해외시장 공략 공동전선

- 수출농가 계약재배 확대…버섯·토마토 등 유망작물 발굴 -

○ 전남도가 NH농협무역과 손잡고 농특산물 수출확대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달 29일 "NH농협무역과 손잡고 전남산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의 해외시장 공략을 공동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농산물의 수출 물량을 늘리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전남지역본부 등과 매월 1회 이상 수출간담회를 갖고, 농식품 해외 수출입 동향, 국가별 소비시장 및 성향 분석 등 수출정보를 공유해 공격적 해외 마케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해외시장에서 지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농가의 수취 가격을 높여주기 위해 농가와 계약재배를 확대하며, 산지조직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월동기 난방비 부담 증가로 수출작목을 타 작목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수출물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에 지열 등 에너지효율화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전남산 농식품의 수출 확대와 관련, NH농협무역이 건의한 농식품 수출 규모화 추진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버섯, 토마토 등 수출 유망 작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키로 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와 NH농협무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내 대학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전남 농산물 수출 공동협약'을 체결해 현장 생산지도, 수출 지도를 총괄하며 한 단계 성숙된 전남 수출농업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 여기에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케이팝, 케이푸드 등 한류 열풍과 연계해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 홍콩 식품박람회, LA 한인의 날 행사 등에 전남 대표 브랜드인 '남도미향' 소속 업체의 참가를 늘리고, 대형 유통업체 및 백화점 등에서 농식품 홍보·판촉전을 개최하는 등 바이어 발굴을 위한 마케팅 활동도 지원한다.

*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히트펌프 냉난방 기술의 진화

- 지하수에 열 저장, 겨울에 꺼내 쓴다 -

○ 농촌진흥청이 최근 '태양열 축열식 히트펌프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온실 냉난방 기술을 선보였다. 2008년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을 보급하기 시작한 이후 공기 열, 여과수열, 공장 폐열 등 다양한 열원을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이제 온실 공기의 열을 저장해서 쓰는 방법까지 실용화한 것이다.

○ 그동안 시설원예 농가에서는 겨울철 낮 동안 태양열로 과열된 온실 내부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배출했다.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버려지던 더운 공기를 히트펌프를 이용해 난방용 온수로 만들었다가 밤에 온실 난방에 이용하는 기술이다. 특히 축열할 때 기준 온도를 설정하면 온실 온도를 작물 생육에 적합하게 유지하면서 온실 안의 공기와 바깥 공기를 순차적으로 사용해 온수를 생산한다.

○ 바깥 공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기존의 공기열 히트펌프는 바깥 기온이 내려가면 성능이 크게 떨어졌으나 낮 동안 태양열로 데워진 실내 공기를 주로 이용하고 부족하면 바깥 공기를 열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시스템 설치비는 현재 농가에 보급하는 지열 히트펌프에 비해 약 60% 수준으로 저렴하며, 냉방도 가능해 여름철 육묘 온실 등 온도 관리가 중요한 시설의 냉방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농기원,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1호 발표

- 시설재배작물 잿빛곰팡이병, 균핵병, 노균병, 흰가루병 발생초기 방제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겨울철에 시설원예작물에 발생이 많은 잿빛곰팡이병, 균핵병, 노균병, 흰가루병과 토마토황화잎말림병 예방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1호를 발표하였다.

○ 토마토, 딸기, 고추, 오이 등의 시설재배 작물에 발생하기 쉬운 잿빛곰팡이병, 균핵병, 노균병 등은 시설 내의 온도가 20℃ 전·후로 낮고 습도가 높을 때 주로 발생하기 쉽다.

○ 또한 질소질 비료의 과다시용으로 작물이 연약하게 자라거나, 생육 후기에 비료기가 떨어질 때 발생한다.

○ 시설재배농가에서는 적정온도와 습도관리를 잘해주고, 생육 후기까지 균형시비와 햇빛쪼임을 좋게하여 작물이 건전하게 자라게하고 병든 잎은 일찍 제거하는 등 발생초기에 방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토마토황화잎마름병(TYLCV)은 바이러스를 가진 담배가루이에 의해 전염되는 병으로 어린잎은 옅은 노란색으로 오그라지며 심하면 위축되어 생장이 정지되는 병이다.

○ 방제요령은 하우스 양측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담배가루이 유입을 방지하고 발생된 포장 주변은 기주식물이 되는 잡초를 제거 해야하며 병든 식물체의 이동을 차단해야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상추 시들음병, 미생물로 '완생'

- 경기농기원, 병해충 방제·토마토 생육촉진 2종 개발·공급 -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상추·토마토 병해충 대응과 수확량 증가 등에 유용한 미생물 개발에 성공했다. 도농기원은 유용미생물인 상추시들음병 방제용 미생물(Trichoderma sp.)과 상추·토마토 생육촉진 미생물(Micrococus sp.) 등 2종을 개발해 도내 농가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 상추의 경우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시설채소지만, 연작재배에 따른 시들음병 발병률이 높아져, 농가의 애로가 많았다.

○ 이에 대한 대처로는 태양열 소독 방법이 있으나 절차가 번거로워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화학농약을 이용한 훈증 소독법도 역시 병원균에 대한 내성이 생겨 방제효과가 떨어진다는 농가의 불만을 샀다.

○ 하지만 이번에 농기원에서 개발한 유용미생물 '트리코데르마'를 이용하면 상추 시들음병을 72.3% 방제할 수 있다. 특히 시들음병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친환경 재배농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아울러 생육촉진 미생물도 정식 후 수확기까지 100배 희석해 일주일 간격으로 관주처리하면 상추는 29%, 토마토는 20%가량 수확량이 증가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경인일보

사과 '부란병' 손쉽게 진단하려면?

- 3월 초 비온 지 2일~3일 후 줄기나 가지의 점액질 관찰 -

○ 농촌진흥청은 최근 사과 과수원에서 부란병 발생이 늘면서 병 발생 부위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육안 진단법을 제시했다.

○ 부란병은 사과나무 가지나 줄기에 발생해 나무를 죽게 만들거나 나무 자람새를 약화시키는 병으로 농가에 많은 피해를 준다. 지난 5년간 주산지 8개 지역 22개 과수원을 조사한 결과, 평균 부란병 발생 과원율이 65.7%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3년에는 81.8%로 크게 늘었다.

○ 사과나무의 죽은 조직을 통해서만 감염되는 부란병은 연중 발생할 수 있지만, 12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가장 활발하게 감염된다. 기존에는 나무를 정밀하게 관찰해 껍질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약간 부풀어 쉽게 벗겨지며 시큼한 냄새가 나는 징후를 찾아내야 해 진단과 방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부란병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시기는 3월 상순이다. 사과나무의 생육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비가 온 지 2일~3일 후에 줄기의 중간 부분을 관찰하면 부란병이 걸린 줄기나 가지에서 주황색 또는 붉은색의 끈적끈적한 물질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점질물이 흘러나오는 부분과 병이 옮지 않은 주변 일부까지 모두 없앤 뒤 적용 약제를 바르거나 병든 부분 주위를 칼로 흠집을 내고 적용 약제를 뿌려야 한다.

○ 특히, 병환부를 없앨 때는 갈색으로 변한 나무 조직을 철저히 없애야 하고, 칼로 흠집을 내 약제를 뿌릴 경우에는 빠지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뿌려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6. 정책동향

◈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안심 농사 지으세요

- 주요 과수 5개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2월 23일부터 판매 -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3일(월)부터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 5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감귤·단감·떫은 감이며, 가입기간은 2.23.(월)부터 3.20.(금)까지이고,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대상 중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 전업규모이상 농가에서 **'15.2.23일부터 준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15.2.23일부터는 축산업 허가대상이 **가축사육업 준전업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 시행되는데 **준전업규모는 사육시설면적이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하는 농가가 해당되며,

○ '16.2월부터는 허가대상이 **소규모 농가**(사육시설면적 50㎡초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일정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 준수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축산농가가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부모님의 평생 세뱃돈 마련, 농지연금으로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연휴**기간 **이후**에 **농지연금 신청**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3개년간의 농지연금 신청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설 명절 연휴 기간 이후인 2~3월에 농지연금 가입신청이 월평균보다 40%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고향을 방문**한 도시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정착단계**로 들어선 올해부터 **가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후준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농업인**도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에서 계속 영농이 가능(임대도 가능)하고 재산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에 **갈수록 매력**을 느끼고 있고,

○ **정부도**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 이를 반영하듯, 올해 1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가입신청 및 가입건수가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농지연금 가입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전국 93개 지사 및 **농지연금 고객상담 센터**(☎ 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한-중 FTA 가서명 완료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14.11.10일) 이후, 양국 정부 대표단이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015.2.25(수)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은 2.25(수)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 양국 정부는 2015년 **상반기 중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한글본·중문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동 협정은 정식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 농업 분야에 대한 **양측의 시장개방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우리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대상에서 제외.** 중국의 전통적 민감품목(쌀, 설탕, 밀가루, 담배)을 제외하고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은 최대한 확보**

-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를 자유화** (냉동고기, 과실류, 채소류는 10년내 개방하고 신선육류, 과채류 가공품 등은 20년내 개방)
- 우리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을 모두 양허 제외**하여 보호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2030세대 젊은 농업인에게 2,300ha 농지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15년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2030세대 젊은 농업인에게 2,300ha를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농지은행사업 전체 사업장**(14,047ha) 대비 16.4%로 농지임대차가 1,742ha로 가장 많고, 농지매입비축 315ha, 농지규모화 매매는 243ha이다.

❑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은 **자본금 부족** 등으로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창업농에게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젊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규모화, 농지매입비축 등 각 사업별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은행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도, 영농기 이전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실시

- 오는 3월 3일부터 시군 순회 수리 및 안전교육 병행 -

❑ 전남도는 농기계 사용불편을 해소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인 3월 3일부터 3월 28일까지(4주간) 봄철 순회 농기계 수리 봉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은 농기계 제조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중앙 순회 수리 봉사반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지역 순회 수리반으로 편성 운영된다.

○ 중앙 순회 수리반은 대동공업, 국제종합, 동양물산, 아세아텍, LS엠트론 등 5개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10여명의 전문수리기사로 5개반을 편성해 운영되며,

○ 지역 순회 수리반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4월부터 마을단위 위주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 이번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기간 동안 일상적인 점검·수리는 무료로 실시하며, 현장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조업체 대리점과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에 인계하여 수리토록 하는데 주요부품 교환에 대해서는 실비를 납부하면 된다.

❑ 이와 함께,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수리, 응급처치 방법,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유류 사용 농기계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작동 요령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

7. 해외 농업정보

◈ 러시아, 2-6월 기간 동안 밀 2백만 톤 수출전망

○ 러시아는 최근 수출관세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계약했던 거래는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2월에서 6월 사이 2백만 톤 이상의 밀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러시아정부는 달러화 대비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급등한 국내 밀 가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12월1일 이후부터 비공식 수출감축과 더불어 2월1일부터 수출관세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Sovecon은 "일부회사는 수출관세 시행 및 루블화가치 안정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이전에 체결된 계약들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한다.

○ 1월 수출용 밀의 철도수송은 803,000톤으로 12월 773,000톤 대비 증가했으며 전년대비 2.4배 상승했다. 1월 곡물수출도 수출관세 시행 전 선적급등으로 사상최대 수준을 달성하였다.

○ 한편 밀과 콩의 1월 수출량은 총 2.3백만 톤으로 12월 3.1백만 톤 대비 감소했다.

(참고) SovEcon* : 러시아 농산물시장민간연구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2. 24.(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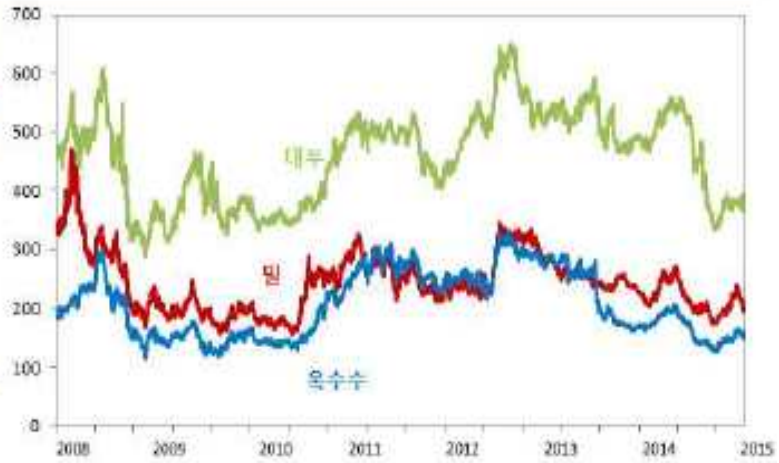
미국산 옥수수 및 밀가격, 달러화 견조세로 근3주래 최저치로 하락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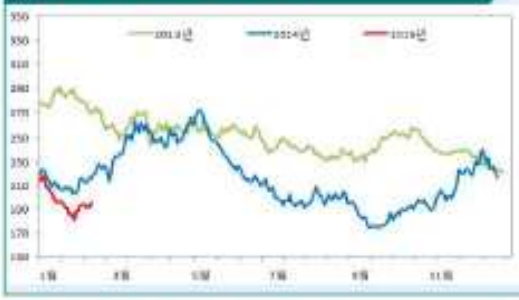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5.2.23)	전일대비	전월평균 ('15.1)	2014 평균
밀	185.77	▼0.9%	200	216
옥수수	149.05	▼1.7%	153	164
대 두	367.14	-	368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정세면질밀: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옥수수,대두,:3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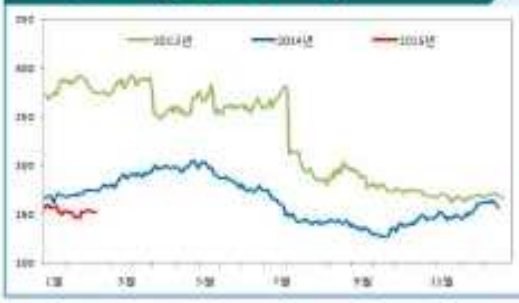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수요 부진으로 근 3주래 최저치로 하락했음. 미 달러화는 일주일래 최고치로 상승했음. 또한 풍부한 세계밀 재고량 역시 미국산 대두가격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했음.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도 주요뉴스가 부재한 가운데 밀과 마찬가지로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수요 부진으로 하락했음.

대두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가공업자와 수출업자간 수요경쟁으로 견조세를 보였으나, USDA의 주간 수출검역이 10월초 이후 처음으로 1백만 톤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매각세 유입으로 보합마감하였음. 한편 USDA에 따르면 다음연도 미국의 오일시드 재고량은 풍부할 것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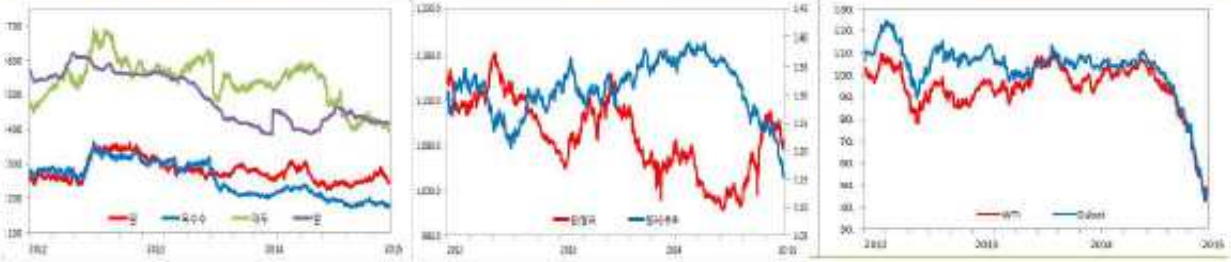
KREI 해외곡물시장

일일동향 Daily World Grain Report http://grain.krei.re.kr/

관련동향

- 곡물 수출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WTI 선물유가는 리비아 송유관 가동재개 소식, 미 경기지표 악화,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음.

곡물 수출가격 (FOB) | 환율 | 국제유가



구 분		기준일	전일대비	전월평균 ('15.1)	2014 평균	2013 평균
곡물 수출가격 (FOB)	밀	237	▼1.7%	249	261	284
	옥수수	180	▼0.6%	180	205	265
	대 두	401	▲0.5%	401	501	556
	쌀	417	–	418	425	488
환 율	원/달러	1,108	▲1.0%	1,089	1,053	1,095
	달러/유로	1,141	▲0.7%	1,16	1,33	1,33
국제유가 (US$/barrel)	WTI	50.34	▼1.6%	47.49	92.97	97.94
	Dubai	60.22	▲0.02%	45.77	96.64	105.32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4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2.11(수출가격), '15.2.13(환율), '15.2.13(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해외곡물시장 관련 소식

- 아르헨티나 농업부에 따르면 2월19일 기준 2014/15년 대두파종은 99%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 튀니지는 4월 선적분 듀럼 42,000톤을 C&F기준 429.29~431.65달러에 구매했다고 함.
- 이스라엘의 민간 구매업자들은 옥수수 90,000톤과 사료용밀 25,000톤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함.
- 요르단은 제분용밀 100,000톤을 구매할 계획임.

* 출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8. 고소득 농업사례

완도 봄빛농장, 무농약 유자제품으로 승부

○ “행복한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면 유자도 좋은 열매를 맺고, 유자차를 드시는 분들도 행복이 가득할거라 믿고 있습니다.”

○ 전남 완도군 고금도에서 유자 농사로 귀농에 성공한 여성 농촌사업가가 있다. 주인공은 지난 2011년부터 완도봄빛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귀농 4년차 여성 농부 박연정 대표.

○ 지난 2003년 고금도 초·중·고 선배이자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을 만나 평범한 가정주부로 서울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박 대표는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했다.

○ 어린시절 파란하늘 아래서 흙 밭을 뒹굴면서 행복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두 아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어 6년 동안의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귀농을 결정하게 됐다.

○ 박 대표는 귀농후 면사무소에서 1년 동안 일을 하며 지역 곳곳을 탐색해 창업 아이템과 기반이 될 농지를 찾았다. 남편은 귀농 작목으로 한우를 선택했으나 좀 더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다고 여긴 박 대표는 완도 특화작목인 유자 과수원 7천 603㎡(2,300평)을 인수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자농사에 뛰어들었다.

○ 귀농전 생협 회원이었던 박 대표는 귀농후 친환경 농사법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전남농업기술원,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견학을 통해 쌀드물 발효액, 은행잎을 이용한 해충 기피제, 산야초를 이용한 액비 등의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조 기술을 터득해 현재는 과수원 뿐만아니라 농장에서 재배되는 모든 작물을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배테랑 농사꾼으로 변신했다.

○ 박 대표의 유자 농사 경력은 5년. 이젠 전환기 유기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을 정도로 품질이 우수한 유자를 생산해 내고 있다. 그러나 판로가 문제였다. 자식처럼 키운 유자가 헐값에 팔리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 박 대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2013년 완도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강소농 비즈니스모델 개발과정 교육을 받았다.

○ 지난해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에 '유자 브랜드와 가공제품 개발'이란 사업 계획을 제출, 사업역량과 차별성이 인정돼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 박 대표는 올해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유자브랜드 '유자도'와 가공제품을 개발했다.

○ '유자도'는 해초류가 많아 음이온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진 완도 고금도를 유자 생산에 유리한 산지로 스토리를 만들고, 브랜드 확장과 수출을 고려해 한글·한문·영문으로 조합해 만들었다.

○ 또 당절임 방법 개선을 통해 유자 특유의 신맛을 줄이고 자극적인 당도는 최소화하며 방부제 등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자말랭이와 유자차 제품을 개발했다.

○ 박 대표는 "고품질 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안정성과 균일한 품질의 원료 조달이 필수인데다 대규모 가공시 균일한 원료 조달이 쉽지 않고 100% 수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직접 재배해 11월 전환기 유기농 인증을 받을 예정인 유자만을 가공 프리미엄급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 여기에다 올해 개발한 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해 소비자와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갖고 블로그, SNS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 그 결과 지난해 매출액이 7,400만원으로 전년도 4,500만원에 비해 64%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 박대표는 "앞으로 소비자가 먹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자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유자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온 국민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유자를 생산하고 해외 수출 시장도 개척해 나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 출처 : 남도일보

황금빛 울금 가공으로 부농 일군다

○ 진도에서 대를 이어 울금 농사를 지으며 최초로 가공에 나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농업인이 있다. 주인공은 울금을 재배(진도 울금농장)하면서 가공(진도 강황영농조합)을 통해 연간 1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박시우 대표(49)다.

○ 2002년 귀농한 그는 아버지에 이어 15년째 진도에서 울금을 재배하고 있다. 현재 직영농장 2.3ha(7000평)에서 울금을 연간 35t 생산하며, 계약재배 농가들로부터 울금을 수매해 연간 120~150t을 저장하고 이 중 80%를 가공한다.

○ 박시우 대표는 생울금 단순 가공으로는 유통 문제 등의 한계를 느끼고 2003년에 진도군농기센터의 지원을 받아 가공장을 세우고 분말, 환, 농축액 생산에 나섰다.

○ 울금은 속이 노란색이어서 '밭에서 나는 황금'으로도 불린다. 울금의 노란 색소는 커큐민이 주성분이다. 생울금을 박피, 세척 후 잘라 24시간 저온 열풍건조한 '건조 울금'.

○ 그는 울금 가공 사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초기 가공시설 투자비를 낮추고 소비자 취향을 고려한 상품개발에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그는 분말·환·농축액(엑기스)·식초 등 주력상품은 직영 가공공장에서 생산하고, 엿·젤리·티백차 등은 OEM(주문자 상표부착품 생산) 생산 방식을 채택해 가공설비 투자를 줄였다.

○ 또한 가공상품 개발시 소비자 입맛을 맞춰 다양성을 추구한 전략이 주효했다. 울금 분말의 경우 부드러운 맛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동결건조 분말과 특유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저온열풍건조 분말, 그리고 체내 흡수가 빠르며 맛과 향이 부드러운 발효 울금 분말로 세분화했다.

○ '발효울금' 건강기능식품 인증으로 가치 높여 박 대표는 진도울금 가공 농가들과 힘을 합쳐 2003년부터 전국 식품박람회 홍보와 언론보도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폈다.

○ 울금은 다른 작물에 비해 인기를 끌기까지 오래 걸려 고생을 했지만 10년 동안 홍보에 매진한 결과 진도울 금이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게 됐다. 진도강황영농조합법인의 주요 제품은 진도발효울금젤리, 울금초, 발효울금, 울금분말, 현미울금차, 울금비누 등이 있다.

* 출처 : 디지털농업

9. 사업신청 안내

◈ 2015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 기간/장소 : 3. 2. ~ 3. 31./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단가(ha당)

- 논 : 유기 600천원, 무농약 400천원, 저농약 217천원
- 밭 : 유기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저농약 524천원

❍ 지급기간 : (유기) 계속, (무·저농약) 3년

❍ 지원한도 : 농가당 0.1~5.0ha

◈ 2015년 농업소득보전 직접 직불금 신청

❍ 신청기간 : 3. 2. ~ 6. 15.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 · 면 · 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지원 · 사무소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실 경작하는 농업인

- 쌀 소득보전 : '98.1.1.부터 '00.12.31.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 · 지급단가(ha) : 평균 100만원
- 밭 농업 :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 지급단가(ha) : 밭 재배 26개 품목 40만원, 논 이모작 50만원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
  - · 지급단가(ha) : 농지는 50만원, 초지는 25만원

◈ 농수특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 26. ~ 3. 10.
❍ 신청장소 : 시·군(유통부서)
❍ 지원대상 :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품을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TV홈쇼핑 방송 판매 수수료 일부
❍ 사 업 량 : 13개소
❍ 지원규모 : 개소당 5,000천원

◈ 2015년 산림소득사업 공모

❍ 공모기간 : 2. 23. ~ 3. 6.(2주간)
❍ 신청장소 : 시·군(산림부서)
❍ 사 업 명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 공모규모 : 3개소 / 1,500백만원(국비 600, 시군비 300, 자부담 400)
❍ 신청자격 : 전문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 저장·건조시설 등

◈ 닭·오리 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신청

❍ 기 간 : '15. 3. ~ 12.(10개월간)
❍ 신청장소 : 시·군(축산부서)
❍ 지원대상 : 260개소(닭·오리 사육농가)
❍ 사 업 비 : 2,600백만원(국비 780, 도비 234, 시·군비 546, 자부담 1,040)
- 지원기준 : 개소당 10백만원(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비용

주간
전남농업정보 23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1
Fax. 061-286-4782